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

발행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 발행일 : 2023년 6월 19일 / 7호 발행인 : 김금주

인천공항 2터미널점 폐점으로 인한 인사이동 면담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지난 6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인사담당과 인천공항점 직원들간의 개별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향후 10년동안 인천공항 1,2터미널 어느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폐점을 해야하는 30일이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정리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점을 사수하지 못하여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은 비단 우리 직영사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입점 업체 중 롯데와인 등은 타면세점과의 계약이 요원하고 청소를 담당하던 용역사원들 역시 계약을 미리 앞당겨 종료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만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과 경영진은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번 사안으로 인사발령을 기다리는 인천공항점 7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타점 직원들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현장의 직원들은 판매담당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직무전환은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부당노동행위 재판에서 법원이 가장 주목했던 것이 바로 개인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직무전환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 지회는 사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인사담당 면담이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직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면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령이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조 롯데면세점지회는 영업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민주노조 롯데면세점 지회는 영업시간을 확대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은 매우 1차적인 영업전략임을 예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이미 나이트 세일같은 변칙적 경쟁영업은 민주노조의 투쟁속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유통노동자들은 모두 힘을 모아 영업시간 및 일요일 휴무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우리회사가 7월 7일부터 연장영업을 예고한 이후 판촉사원 중심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주노조 롯데면세점 지회 역시 막무가내 통보식의 영업시간연장에 반대합니다!



인천공항점을 폐점하면서 잉여직원들이 많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모두 사측의 논리입니다. 이미 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원청인 백화점과 면세점에 교섭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모른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롯데면세점 정규직은 나날이 근로조건이나 복지가 퇴보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우리의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전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노동조합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주노조 롯데면세점 지회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 민주노조 롯데면세점지회 가입하기

<http://ldflu.org>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